

▶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17.2원 하락한 1,202.1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유가 급등과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1,204원에서 출발한 이날 환율은 장초반부터 지속된 역외 롱스탑으로 장중 1,200원선을 하회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저점 결제수요가 유입되며 하단이 제한되었다. 한편 전일 발표된 미 서비스업 지표 부진과 유가 반등으로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며 이날 코스피는 반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에 국내증시 순매수로 대응하며 환율은 추가 하락해 전일 대비 17.2원 하락한 1,202.1원의 종가를 형성했다.

한편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증가 수준인 1,019.51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04.00	1205.80	1199.80	1202.10	1202.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5.65	1035.65	1012.76	1029.31

▶ **금일 전망**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되며 1,190원선 하락 전망

금일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으로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며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9.45원 하락(스왑포인트 고려)한 1,193.75원으로 마감하였다.

이틀 전 1,220원선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금일 1,190원대 초반까지 급락해 출발할 전망이다. 환율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환율 급등 이후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일까지 서울 환시가 휴장하는 만큼 최근 구축해온 롱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강화되며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당국의 속도조절성 개입과 저점 결제수요가 낙폭을 제한할 수 있어 금일 환율은 1,190원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7.33 ~ 1197.83 원
------------------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80.46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45원하락

---

■ 美 다우지수 : 16416.58, +79.92p(+0.49%)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5.73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96 억원

---

---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